



3면

도내 대학생들도 시국 선언

전주매일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음 11월 2일) 제36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강원 상생협력 한걸음 더

전북자치도, 7월 11일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 협약 후속 조치 일환... 강원 방문 김관영 도지사, 강원자치도 직원들 대상 특강...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과 양(兩)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잡았던 전북-강원 상생협력의 이정표를 공고히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강원 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전북-강원 두 지역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번 방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양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11일 체결된 '전북-강원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화답해 '전북과 강원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두 지역이 공유하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와 현안,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강에 앞서 전북자치도는 재춘천호남향우회와 재춘천전북특별자치도민회 등 강원에 거주하는 출향 도민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출향 도민들의 고향 사랑에 감사를 전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력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또한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으로, 곤충산업 자동화, 배양 및 생산 공정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남원시가 올해 같은 공모에 선정된 만큼, 두 지역 간 경험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곤충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의 일환이다. 양 지역은 경제·사회적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곤충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의 협력은 양 도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월 11일 체결된 '전북-강원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환담을 갖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과 강원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며, 자치와 공조의 가치를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과 전북은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달리 도민이 만드는 특별자치도라는 독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북-강원의 상생협력 관계가 다른 시·도에서 본받을만한 성공적인 협력 관계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한파 대응... 전북자치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0개소와 협력하여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감시체계는 한랭질환자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추위로 인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응급실 20곳과 협력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발생 현황을 기록하며,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공개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총 19명(전국 400명)으로, 전년도 16명(전국 447명)보다 3명이

증가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처럼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 시 외출 전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외출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될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만호 기자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김인태 전주 부시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 모습을 잡고 있다.

전주 메카노바이오 실증센터 개소식

혁신의료기기 상용화 기업지원 체계 마련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메카노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사용적합성 평가 및 상용화를 지원할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주시 김인태 부시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실증센터의 시작을 축하했다.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는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3월부터 건립이 추진됐으며, 연면적 1,168㎡(353평)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시는 중재의료기기의 실증을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고, 비임상 실증 지원 시설 및 장비 등을 통해 혁신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원스톱 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전주가 혁신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증센터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인체삽입형 의료기기(3~4등급)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인체삽입형 의료기기의 경우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핵심기술이 의료기기에 적용되면서 전세계적인 고령화 속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실증센터 인근에는 의료기기 제작 및 소재 개발지원부터 물리화학적 평가, 안전성 및 사용적합성 평가를 책임지는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가 기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연구센터와 실증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혁신의료기기 상용화 전주기 기업지원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관련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인체에 삽입되는 3~4등급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인프라를 연이어 개조하면서 앞으로 전주가 고부가가치 혁신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실증센터가 개소한 만큼 앞으로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기업 친화형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바이오산업이 전주를 이끌 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소복이 쌓이는 아름다움 ❄️
무주의 겨울을 걷습니다.

자연관광사무소 여행문의 1899-8687 <https://tour.muju.go.kr>